



광주 북구 본촌동 한 아파트 단지 주변 인도와 차도 곳곳이 파손되고 균열이 심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김동수기자

도로 곳곳 파이고 갈라지고...행정기관은 ‘모르쇠’

광주 북구 본촌동 일대 가보니

인도·차도, 파손·균열 심각...장애인·노약자 통행 큰 불편
區, 인명 피해 우려 불구 수차례 민원 ‘외면’...“예산 부족”

“인도 곳곳이 파이고 갈라진 탓에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기관은 도로 정비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29일 오전 광주 북구 본촌동 (3097번지) 일대.

광주신일곡현진에비빌아파트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400m 구간, 이 구간은 왕복 2차선 도로로 양 쪽 끝 인도 폭은 3~4m 정도 돼

보였다. 문제는 한 눈에 봐도 인도와 차도 곳곳이 파손되고 균열이 심각한 상태였다. 가로수 뿌리가 파고 들어와 인도가 움푹 패어있거나, 인도 블록이 1m 이상 금이 가 있는 등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었다.

주변 도로 관리가 부실한 탓에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었다.

더욱이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의 경우 통행에 큰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밀어주던 한 보호자는 돌출된 인도 블록을 미쳐 발견하지 못한 채 이곳을 지나다 바퀴가 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을 맞기도 했다.

지팡이를 짚고 인도를 걸던 노약자는 가로수 뿌리가 파고 들어 파손된 인도 블록 위를 걷다 휘청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보행에 불편을 호소했다.

인근 주민 A씨는 “이곳에 거주한 지 20년이 흘렀고, 인도·차도 할 것 없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관내 곳곳에서 도로정비 공사가 한창인데, 우리는 북구 주민도 아니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길을 걷다 넘어져 인명피해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인근 주민 B씨는 “최근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이곳은 아파트와 상권이 밀집해 있어 통행량도 많다. 그럼에도 신경조차 쓰지 않고 있다”고 불평했다.

이처럼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이 행정기관의 미흡한 도로 관리 탓에 보행권 침해·위협 및 인명피해 우려까지 낳고 있어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2017~2020년) 관내 도로정비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2건으로 2017년 48건, 2018년 48건, 2019년 77건, 2020년 39건으로 나타났다.

북구는 우선 도로정비구역을 선정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보행

·통행량이 많거나 노후화가 심각한 구간 등에 대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북구 본촌동 일대 구간의 경우, 2000년대 초반 택지개발 이후 도로정비 공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되는 등 주민들 사이에서는 ‘도로 정비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 관계자는 “도로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은데다, 해당 구간 이외에도 모든 구간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민원이 제기된 구간에 대해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양뉴스)

“광주 북구 북동 일대 고층 아파트 건설 추진 반대”

광주 한 시민단체가 북구 북동 일대 ‘고층 아파트 재개발사업’을 두고 도심 경관을 해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소속 상인과 시민들은 2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 도시정비사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는 “북구 북동은 원도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연계한 상업지역 본연의 용도에 맞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실과 행정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의 고층 주거시설과 더불어 북동까지 39층의 고층, 고밀도 아파트 벽 숲을 이룬다면 경관, 조망권에 대한 기준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며 “광주의 도시개발 철학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북구 ‘북동을 지키는 사람들’ 소속 상인과 주민들이 29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질된 북동 도시정비사업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이는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은 억제하고 역사가 깃든 구 도심에서는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소규모 정비와 역사, 문화, 관광과 연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김동수기자

광주경찰, 전직 재개발 조합장 구속영장

공사 수수·취업 관련 사기혐의

광주지역 모 재개발사업 전직 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9일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광주 모 재개발지역 전직 조합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광주지법에서 진행됐다.

A씨는 2017년 조합장 재직 시절 공법과 함께 공사 수주를 대가로 업체 측에 1억1천만원을 받고, 올해에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에게 5천만원을 받아 쟁전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3일 업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광주경찰청 소속 B 수사관(경위)과의 약연이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B 경위는 과거 A씨를 불법 행위로 처벌한 전력이 있고, A씨는 B 경위에 대한 비위 의혹을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검찰로부터 B 경위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경찰은 A씨가 B 경위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A씨 관련 사건을 기존 수사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아닌 다른 형사와 강력범죄수사대로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B 경위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인물을 같은 부서에서 수사하면 괜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다른 수사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하도록 했다”며 “B 경위가 구속되기 이전부터 검찰과 영장 신청을 조율해온 사안으로 B 경위 구속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이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학동참사’ 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본사 상경 투쟁”

“불법행위 책임 져야 한다”...내달 1일 항의 방문

광주 시민단체가 학동4구역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 현대산업개발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서울 본사를 항의 방문한다.

29일 광주 학동참사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오는 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피해 회복과 진상 규명에 대한 현대산업개발 측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정몽규 회장과 면담을 추진한다.

전한다.

이들은 이날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학동 참사의 근본적 원인은 이윤만을 위해 재개발 사업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현대산업개발의 비위 행위에 있다”며 “(불법 행위를) 낱알이 드러내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는 것이 후진국형 참사를 반복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산업개발이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인지했다는 사실이 경찰 1차 수

사로 드러났고, 재하도급 업체에 철거공사 전반에 대해 지시한 정황도 나타났다”며 “참사의 진정한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는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조합장 선거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학동 참사 관련 수사를 진행한 수사관이 구속된 것에 대

해서도 “학동 참사의 진실을 덮는 수사 방해를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다.

다만 질의서는 수사를 진행하는 데 민감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대책위는 해당 수사관이 2018년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위 의혹을 제보받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경찰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조태훈기자

목포해경,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규정보다 총출한 그물을 사용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전날 오후 5시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망목 규정을 위반한 채 조업한 중국어선 A호 (98t·유망·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A호는 더 많은 고기를 잡을 목적으로 규정인 그물코 크기 50mm 보다 작은 39.3mm 그물을 사용해 어류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재수 목포해양경찰서장은 “불법 조업 외국어선의 무허가 행위는 물론 허가 어선의 제한조건 위반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 활동을 강화해 어민·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층간 소음’ 갈등 살인 30대 구속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으로 위층에 사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A (34)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은표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순천=남정민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책임 A/S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오토매틱 수리 전문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우편 집중국
롯데 마트
힐스테이트 110동
타임 시티
현대 힐스테이트 101~109
신협
커저씨 교회
보훈 병원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늦으시면 앓차하십니다

급매 전문

[상가건물]

- 고창 공영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대지3,707㎡ 가공공장, 창고,판매장3개동 매가:6억8,000(시세50%) ***가든경림빌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CMYK